

성장의 역사 속에서 위기극복의 교훈을

라 승 진 | 한국어촌어항협회 기획관리팀장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수명은 1955년은 45년, 1975년은 30년, 1995년은 22년, 2006년은 10.4년으로 점점 짧아지고 있고 일본, 유럽 등 세계적 기업들도 평균수명이 13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기업은 위기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10년 이상 생존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수산부국 실현의 꿈을 안고 태동한지 올해로 22번째 해를 맞았다. 단순히 기업의 평균수명과 비교하자면 2배 이상을 생존하고 있는 셈이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 협회는 날로 위축되어 가는 수산업의 위기 속에 어업인, 관련 업·단체, 학계 및 일선 수협 등과 결집해온 네트워크 역량, 정부와 구축한 정책집행에 대한 협력적인 파트너십, 주변 어업국 등과 국제협력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온 것이 그 원천이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늘 상존해 온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속에 기반을 공고히 하고 성장한 것이 그 생존비결이라 생각된다.


최근 수산과 협회 조직을 위협하는 세력의 움직임이 또 다시 감지되고 있다.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위기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을 거듭한 협회의 22년사를 돌아보며 위기극복의 교훈을 읽고 수산 분야의 유일한 공공기관인 협회의 일원으로서 자부심을 다져보고자 한다.

1. 한국어항협회 출범

1987년 당시 일본은 고도로 산업화된 사회임에도 2,923개 어항에 1조 2,823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를 투자하고 있었고 창립 39년을 맞고 있는 일본전국어항협회는 40개 현마다 지회가 조직되어 있었으며 수산 공학연구소, 어항어촌건설연구소 등 14개의 어촌·어항관련 단체가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수산업 발전을 주도해 나가는 등 수산업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었다.

이와 달리, 해안선이 잘 발달한 우리나라는 1,941개의 어항이 있었으나 360억원이라는 저조한 어항개발 투자로 인해 해마다 태풍과 해일에 의해 연평균 7천여척이 넘는 어선들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입고 한해에 무려 144억원이 넘는 피해를 입고 있었다. 또한 급격한 산업화로 수산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갔으며 이촌향도(離村向都) 현상은 물론 어가소득은 도시가구나 농가소득에도 못 미치고 어업인구는 나날이 감소해가는 등 일본과는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동인(動因)으로 낙후된 어항산업을 활성화시켜 우리 수산업을 진흥시키겠다는 사명아래 어항관련 업계 중심으로 회원을 구성하여 1987년 5월 27일 창립총회와 함께 6월 9일에는 법인등기가 완료됨으로써 현재 특수법인 한국어촌어항협회의 모태인 사단법인 한국어항협회가 태동하였다. 당시 창립자이신 손정식 회장의 사재를 털어 서울 강남구 논현동 동익빌딩에 등지를 틀고 축하화분을 팔아 운영비를 마련하는 등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한 것이다.



1987년 8월 11일 위기는 바로 닥쳐왔다. 제135회 국회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협회 설립에 대한 질타와 민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을 무슨 부조리한 사회의 이권단체쯤으로 보고 심한 견제와 폐지론까지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해 나간 것이 위기와 함께 성장할 협회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 같았다.

○○○ 2. 특수법인 전환으로 재도약 발판

1992년 강남구 역삼동의 삼흥빌딩으로 등지를 옮긴 이후, 1994년 3월 30일에는 한국어항협회가 어항법 개정을 통해 법적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에서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으로 법인격이 전환되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렇게 어항법이 개정되는 과정도 그리 순탄치만은 않았다.

어항법은 1969년 제정 이후 20년 이상 흐르는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수산업은 어선세력과 어로 기술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음에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주변정세에 적절히 대처할 수 없는 실정이었다. 또한 협회는 어항의 종합적인 개발의 추진, 기술 개발, 조사·연구·홍보 등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데 민간단체 성격인 사단법인으로서 한계에 부딪혀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가 없었다.

이를 계기로 1988년부터 어항법 개정을 위한 연구를 이어갔고 정부에 개정안을 제출하여 1990년 2월 쯤에는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개인이나 협회의 사리사욕이 개입되었다는 오해의 혼란 속에서 5년이 넘도록 관계요로에 끝없는 건의와 설득을 시도하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1993년 6월 11일에서야 제정·공포하기에 이른다. 어항기능 활성화를 위한 어항시설의 범위 확대와 관리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본유치의 길을 트게 하였으며, 어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홍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 3. 존립위기의 극복

1996년 문민정부 들어서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로 출범시키는 조직개편이 단행되었다. 수산청이 설치된 1966년으로부터 30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데다 수산업이 해운업에 비해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을 다루고 있는데 전 수산인은 명칭부터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조직도 5개 국 중 해운은 3개국, 수산은 2개국으로 수산청 직제 하에서 보다 더 위축되었다.

일본의 경우 수산청 아래 5개 부(국)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양산업으로 취급받는 수산업에 오히려 한층 더 힘을 쏟고 있었고, 세계 최초로 수산자원저장제도를 실시한 뉴질랜드는 농업수산부를 농업부와 수산부로 분리하여 기능과 지위를 강화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수산부문의 행정이 중요시 되는 시점이었다.

협회의 운명은 어땠을까?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되었으니 항만협회와 어항협회도 통합되어야 한다는 위협이 다가왔다. 최근 농림수산물부 출범이후 특정 세력이 벌이고 있는 수산과 농촌분야 지원 조직에 대한 통합분위기 조장도 이와 다를 바 없다. 부처통합이 있을 때마다 약육강식의 세계처럼 힘의 논리를 앞세워 등장하는 단골메뉴가 아니겠는가?

단순비교만 하더라도 항만은 물류의 집합과 분산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기업이 고객이고 3차 산업

기반이다. 어항은 생산·유통·소비와 어업인의 생활이 들고나는 1차 산업 기반으로 그 개념과 기능부터 판이하게 다르다. 여기에 얽힌데 뒤틀린적으로 그간 협회 기반사업으로 운영해오던 어항청소선 7척을 넘겨주어야 할 위기까지 우리를 괴롭혔다. 어항청소선은 항만의 청항선과 달리 경제성이 우월하고 기능과 운영 체계, 범시행근거가 다름에도 통합운영에 대한 문제제기가 매년 챗바퀴처럼 되풀이 된다.

같은 고양이과 동물이라는 이유로 호랑이와 사자와 고양이, 치타, 표범을 한 우리에서 사육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낳겠는가? 협회가 존립에 앞서 오로지 어항과 수산을 살려야 한다는 사명과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정제하는 것은 곧 소멸한다는 각오로 정면 돌파해 나갔다. 회장의 리더십과 조직력이 이탈자 없이 진격해 나갔다. 사고틀을 깨고 논리를 개발하며 단합해 나가는 우리가 당연히 이기지 않았겠는가?

4. IMF외환위기 긴 터널을 지나

1997년 12월 22일, 강남구 역삼동에서 종로구 원남동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었다. 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구·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청사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이 때 IMF 외환위기가 다가왔다. 1998년도에 이어 1999년도까지 정부예산도 20%나 삭감되면서 임금 삭감은 물론 현재의 공공기관 선진화방안과 같은 인원감축과 임금삭감, 퇴직금누진율제도 폐지, 정년단축, 인센티브제 도입, 경영시스템 개선 등 정부의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34명의 현원 중 15%나 되는 5명을 정리하고 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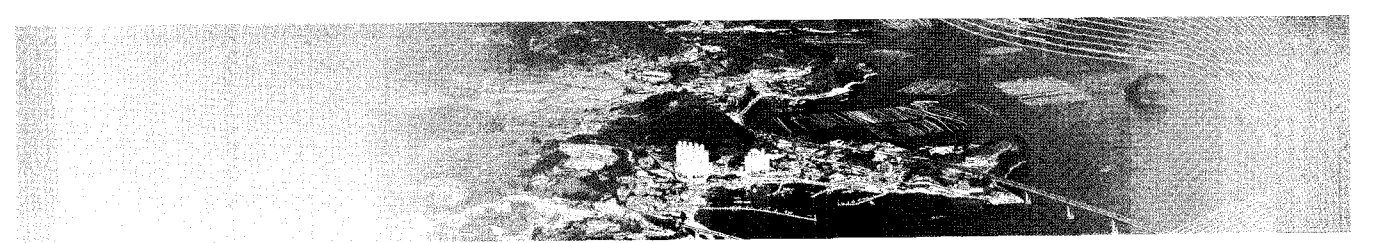
어항건설업계의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회비수입도 감소되었다. 회비분담금 비율도 인하하여 협회의 기본 수입재원이 흔들리게 되었고 정부의 예산도 감액 편성되면서 용역수행도 어려워 졌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자체 경영개선방안을 수립해 본 것도 수차례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이 공공부문에 무수히 투입되는 상황에서 비영리법인도 이제는 수익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되는 급격한 경영환경의 변화가 일고 있었다.

이러한 가운데 꾸준히 어항청소의 노하우를 쌓아온 우리 협회에 기회가 왔다. 정부는 어족자원을 훼손하는 폐어망 등 해양환경의 오염원을 제거하고자 1999년 정부가 최초로 수중침적폐기물정화사업을 시작하였고 같은 해 4월 14일 우리 협회가 10억원의 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였다. 어려운 때 효자노릇을 한 것이다.

2000년에 들어서는 IMF 조기극복을 위해 당시 정부도 몸집을 줄이고 국유재산을 매각하여 재정조달을 추진하고 있었다. 급기야는 같은 해 7월부터 2002년 8월까지 협회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청사의 매각 입찰이 진행되어 3억6천만의 빚을 어렵게 얻어 2002년 9월 16일 종로구 인의동 인의빌딩으로 쫓겨나듯 이전하게 되었다.

5.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재탄생

1986년부터 협회는 앞서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어촌·어항 구상을 벤치마킹하여 어촌과 어항을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정부와 협의한 끝에 2002년 3월부터 법 개정을 위한 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고령화, 탈어촌 현상 및 수산업의 여건악화에 대비하고 내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어촌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 그 근본 취지이다.

그러던 중 2003년 3월 11일 총회에서 전 해양수산부 차관보를 역임한 배평암 회장이 새로이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수산계 인사는 모두 알고 있듯이 배대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업무추진 능력과 정관계 인사와 교분이 두터운 분이다. 이때부터 주무부처 담당과장, 계장 등의 잦은 인사발령으로 공회 전 상태이던 법 개정 추진은 다시 급물살을 타고 2004년 11월에 법제처 심사를 마친 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다.

그러나 협회 사업으로 새로이 추가된 어항안전점검 업무나 어촌까지 확대된 영역을 장비와 인력이 적은 협회가 수행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2005년 4월 25일부터 제253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회장의 업무보고와 함께 국회의원들로부터 심도 있는 검토와 질문이 이루어졌고 준비된 논리와 수산발전을 위한 명분은 2005년 5월 31일 어항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어촌·어항법이 새로이 제정·공포되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어항개발 위주에서 어촌의 정주환경 개선과 함께 어촌관광을 활성화하여 어촌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즉 정책 패러다임이 점단위 개발에서 면 단위 개발로 옮겨가는 획기적인 전환이었다.

2005년 12월 1일 법 발효와 함께 한국어촌어항협회로 재탄생하게 되었고 어촌조사 업무와 어항시설 안전점검, 어촌관광 활성화업무가 신규로 확대되었으며 연근해수역의 정화사업이 중앙부처 대상에서 지자체까지 대폭 확대되는 등 사업의 신장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 그간의 협회 역사는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때부터는 협회가 외형적으로 급성장하게 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임직원도 30여명에서 60여명에 가깝게 증가되고 2007년도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우리 협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강화되게 된다. 한마디로 그만큼 협회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당시에도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다. '농업기반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명칭을 바꾸고자 하였으나 이미 어촌·어항법을 근거로 우리 협회가 어촌어항협회로 전환되는 상태인데다 '농업기반공사'의 소관법을 개정안에 대한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보고서에서도 '농어촌공사'로 명칭 변경시 소요되는 비용 등이 국민에게 낭비로 비춰질 소지가 있고 공사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 하여 2005년 12월 29일 동 법률 개정안이 '농촌공사'로 수정 가결된 바 있다. 국회에 대한 회장의 즉각적인 대응이 없었더라면 더 큰 혼란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을 상황이었다.

6. 블루오션전략과 함께 새 시대를

2008년 7월 29일, 협회 설립이후 세 번째로 심호진 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해양수산부 전 차관보를

역임한 분으로 수산자원조성 및 시설, 어장분야 등에 높은 식견과 전문가적인 리더십을 인정받고 계신 분이였다. 그러나 8월 21일 임기개시와 함께 그야말로 어이없는 위기를 맞게 된다.

현 정부 들어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를 위해 319개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지원기관 대상으로 통·폐합, 민영화, 매각, 경영효율화 등 선진화 검토가 이루어지는데 당시 '농촌공사'가 '농어촌공사'로 다시 전환하기 위해 소관법률 개정안이 기획재정부의 검토를 거치면서 우리 협회와 통·폐합 등 선진화방안 논의가 불거지게 된 것이다. 당초 업무나 기능의 중복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민감한 시점에 '어촌'이란 명칭을 들고 나와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정면 돌파에 승부를 걸었다. 청와대, 국회는 물론 관계요로에 발로 뛰며 결국 기획재정부와 선진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협회의 '어촌조사' 부문은 농어촌공사로 이관을 검토하고, 우리 협회는 바다를 중심으로 하여 어항과 어장 등을 연계한 수산의 종합발전을 위하여 공단으로 육성·발전키로 한 것이 그것이다.

이미 일본은 원양산업의 위축으로 재배어업과 자원조성을 강화하고자 효율적인 수산식량자원 개발을 위하여 '어항법'을 '어항어장정비법'으로 개정하고 '신마리노베이션 구상'이라는 정책을 통하여 수산기반시설 중 어항과 배후부지를 이용한 낚시공원, 바다목장화와 관련된 인공어초·어장관련 해상가두리 낚시터, 마리나시설 등의 통합적인 어항어장정비 및 관광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최근에 일본은 어항을 반 폐쇄적인 가두리로 보고 종묘를 방류하여 지속적으로 먹이를 주는 등 일정기간 관리한 후 어장으로 내보내는 중간적 육성단계로 활용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터라 우리 협회도 국내 수산업에 대한 선진화를 위하여 어항과 어장 등 수산 제반시설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블루오션 전략을 선택한 것이다.

여기에 박차를 가하여 협회 설립이후 최초로 수산자원조성분야의 연구성과물로 특허를 출원하고 어항과 어장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한편 정부의 법 정비작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협회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것이다.

○○○ 7. 위기 속에서 성과 창출

우리 협회는 그간 수많은 위협과 위기 속에서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역량을 강화하고 기반을 공고히 하여 설립당시 보다 현재는 665배 이상의 외형적 성장을 이룩하였다. 물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나 집행기능의 위탁, 출연을 받는 기관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수산업 기반을 위해 200억원이 넘는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수산분야 단체 중에서는 유일할 것이다.

우리 협회는 1987년부터 100여종에 가까운 기술도서, 정책연구보고서 등을 발간하여 정부, 업계 등에 보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어촌·어항분야의 지식의 총 본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왔다. 특히 1994년도에는 1억8천만원을 들여 '어항종합개발연구'를 정부용역으로 최초로 수행한 후 2006년도에는 20억원에 가까운 용역비로 수산분야 최대 규모인 '기초조사 및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어촌·어항 전문기관으로서 연구능력을 입증해 보였다.

그리고, 1988년부터 2002년까지 관계요로에 총 34건 이상의 어항발전을 위한 각종계약 및 공사관련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일본, 유럽, 대양주 등에 어촌·어항·어장관계자를 현재까지 총22차에 걸쳐 현재까지 768명을 파견하여 관련시책과 정비실태에 대한 국제적인 식견과 기술·관리능력을 배양 토록 지원함으로써 관련기관의 시책이나 기술력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연도별 수지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별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수지예산		36	114	159	188	217	206	336	346	872	1,662	1,349
구분	연도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지예산		1,377	2,495	3,283	4,140	5,694	7,991	9,240	13,985	15,994	15,943	23,970

1997년부터 매년 양국 100여명의 기술·정책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일 국제기술교류회의를 개최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국, 아프리카 등 수산관계자와도 지속적인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간 외교 활성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다.

1995년에는 정부로부터 15톤급 어항청소선을 3척, 1996년도에 4척을 추가 인수하여 국가어항을 청소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었고 2003년 12월에 99톤급 다기능청소선을 인수하여 연안수역까지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2008년부터는 국가어항에서 지방어항까지 어항청소영역이 법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비로소 전국 어항에 대한 상시정화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1999년부터 시작한 연근해 어장 등의 해양폐기물정화사업은 협회 주력사업으로 자리잡아 국내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2002년도와 2003년도의 태풍 피해복구사업은 우리 협회가 전담하다시피 수행하게 되었으며, 각 지자체의 사업위탁은 물론 2008년도에는 단위사업으로는 최대 규모인 123억원 규모의 태안군 유류피해 복구사업을 3개월 만에 완수해냄으로써 자타가 공인하는 국내 최고의 정화사업능력을 보여주는 기쁨을 토해냈다.

그리고 자연재해로부터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는 어항시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정기적인 안전 점검업무를 1995년도에 용역으로 시작하여 1996년부터는 법정 위탁사업으로 수행함으로써 어항의 기능 유지와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게 되었다.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은 2004년도 '아름다운 어촌 찾아가기 행사' 용역 수행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도시인 5,700여명 이상의 어촌관광을 유도하고 각 체험마을의 컨설팅사업, 수산물소비촉진, 바다여행 사이트 운영 등 어업인의 어업외소득 향상을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선점하여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외형적이 성장이외에도 우리 협회는 강도 높은 경영쇄신과 운영시스템의 효율화로 타 공공기

관에 비해 선도적인 선진화를 추진하여 내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정부와 국민에게 이르기까지 신뢰 받는 공공기관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최근 성과만을 돌아본다면 2006년도에는 당시 기획재정부에서 3년마다 시행하는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해양수산부 소관 1위를 차지하여 정부위탁사업의 효율성과 예산절감능력 등을 인정받았고 2007년도에는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어 혁신평가를 받은 결과, 성과창출단계인 4단계로 바로 진입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타 기관으로부터 질투어린 부러움을 사기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금년 6월에는 새로이 도입된 공공기관장 경영평가에서 92개 기관중 4개 기관장의 해임과 17개 기관장이 경고를 받는 와중에도 '우수' 평가를 받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기관 중에서는 대규모 기관과의 경쟁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심호진 회장의 부임과 동시에 찾아온 통폐합 논란, 기관장 임금 삭감, 눈물겨운 경영효율화 단행, 노사가 한마음으로 적극 협력하여 당초 목표를 훨씬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하는 과정이 있었기에 우리의 성과는 더욱 빛을 발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매년 외부전문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근 3년간 신용평가등급이 최고등급인 AAA를 받았고 금년도에도 최고등급이 예상된다. 우리 협회의 재무안정성과 수익능력, 신용도 등이 매우 안정적인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이 정도 수준은 국내 기업의 2~3%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자부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를 계기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인천광역시의 매년 30억원 이상되는 바다쓰레기 수거사업을 비영리법인간 경쟁에서 당당하게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으니 작지만 무서운 우리 조직의 면모를 경영효율화를 통하여 보여준 것이다.

8. 앞으로의 각오

이제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와 같이 다시 일고 있는 수산과 우리 협회를 위협하는 분위기를 일소할 수 있도록 어업인의 편에 서서 투쟁하여야 하고 수산업의 선진화를 위하여 우리의 계획과 구상들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

지금 협회 직원은 이러한 분위기나 공공기관에 대한 매서운 국민의 시각, 정부의 선진화 시책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내부 구성원 조차 힘을 응집하지 못하고 분산된다면 그로 인한 결과가 우리 모두의 소중한 일터는 물론 수산분야 전반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껏 우리 협회는 개인의 역량보다는 기관장의 리더십 아래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힘을 결집해 위기를 극복하면서 성장을 이루어왔다. 소규모 조직에 맞는 효율적인 작전이자 어쩔 수 없는 방편이기도 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협회 기능과 조직이 더욱 보강되어 개인역량 강화는 물론 시스템적이고 네트워크적인 대응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이번 계기를 통하여 반드시 성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간의 협회가 걸어온 22년의 역사를 통해 자기 자신이 어떠한 위치에서 있어야 할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할 것이다. 